

# 일곱 번째 생일 파티

글 | 로스비 모히카 성

그림 | 지야 류테료

글 | 로스비 모히카 성 (Rosevi Mojica-Sung)

그림 | 지야 류테료 (Gia Leuterio)

편집 | 김은파, 이수인, Mike Jaffe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베트남어 번역 | 황티장

중국어 번역 | Wenting Du, 교정: 이흠

영어 번역 |

태국어 번역 | 김주영, 감수: 분타리카 너이씨 (บุณฑริกาน้อยศรี), 교정: 채혜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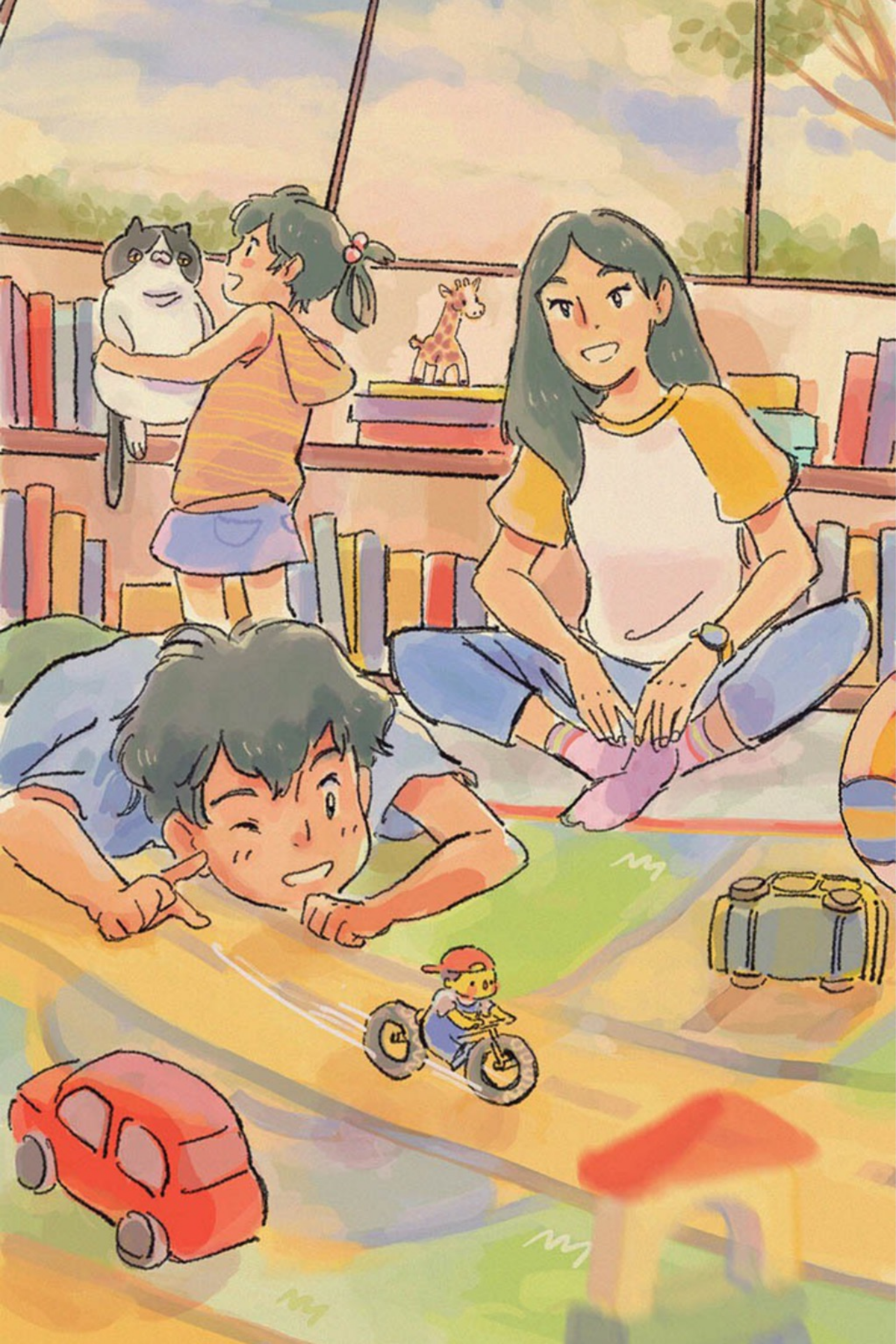
목소리 | 한국어: 윤성혜, 베트남어: 레 쉐언 비, 중국어: 곽효여,

영어: 제인 페인터, 태국어: 페와 떼차마하몽콘





아미한은 부산에 사는 키가 큰 여자아이예요. 필리핀에서 태어나서 5살 때 한국으로 이사를 왔어요. 한국 사람인 아빠랑은 한국어로, 필리핀 사람인 엄마랑은 필리핀어와 영어로 대화해요. 아미한은 초등학교 6학년이고 동생 마릴락보다 세 살이 많아요. 그리고 자전거 타기를 아주 좋아해요!



아미한과 마릴락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필리핀에 놀러 왔어요. 필리핀에 머무르는 동안 외사촌 동생인 안톤의 일곱 번째 생일 파티가 있었어요. 필리핀에서는 일곱 번째 생일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평소보다 파티를 크게 해요.

“생일 선물로 뭘 받고 싶어?” 생일 전날 아미한이 안톤에게 물었어요.

“자전거를 받고 싶어.” 안톤이 대답했어요.

“나도 자전거를 제일 좋아해!” 하고 아미한이 말했어요.



안톤의 생일날 아침,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은 ‘레촌’을 요리했어요. 레촌은 돼지를 통으로 구운 요리예요. 축제나 생일처럼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으로 인기가 많아요. 냄새가 너무 좋아서 아미한은 군침을 삼키며 물었어요.

“저 커다란 레촌을 언제 먹을 거예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점심 때 먹을 거란다!” 하고 외삼촌이 대답했어요.



외숙모는 국수 요리인 ‘판싯’과 과일 샐러드, 특별한 디저트를 만들었어요. 판싯은 필리핀에서 생일날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판싯은 오래 전 중국에서 왔어. 사람들은 기다란 국수를 먹으면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서 생일날 판싯을 먹어.” 외숙모가 아미한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드디어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안톤, 반 친구들 왔다!” 외숙모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안톤의 누나인 마유미는 여러 가지 놀이를 준비했어요. 아미한과 마릴락도 마유미를 도와서 상품을 포장했어요.

“지금부터 놀이를 할 거야. 상품이 많이 있어!” 마유미가 생일 파티에 온 어린이들에게 말했어요.



아미한은 먼저 ‘푹푹 팔라육’ 놀이를 했어요. 공중에 매달린 향아리를 막대기로 쳐서 깨트리는데 사람이 이기는 놀이예요. 참가자가 눈가리개를 하고 제자리에서 몇 바퀴를 돌면 다른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려 줘요.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향아리가 깨지면 그속에 들어있던 사탕과 동전, 과자가 쏟아져요. 아미한도 해 봤지만 향아리를 깨트리지 못 했어요.



다음으로 아미한과 마릴락은 ‘파비틴’ 놀이를 했어요. 파비틴은 어린이들의 생일 파티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놀이 중 하나예요. 공중에 매달린 대나무 틀에 작은 장난감과 사탕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줄을 잡은 사람이 대나무 틀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 참가자들은 상품을 잡으려고 뛰어올라요. 마릴락은 사탕 몇 개를 잡았고 아미한은 가장 큰 장난감을 손에 넣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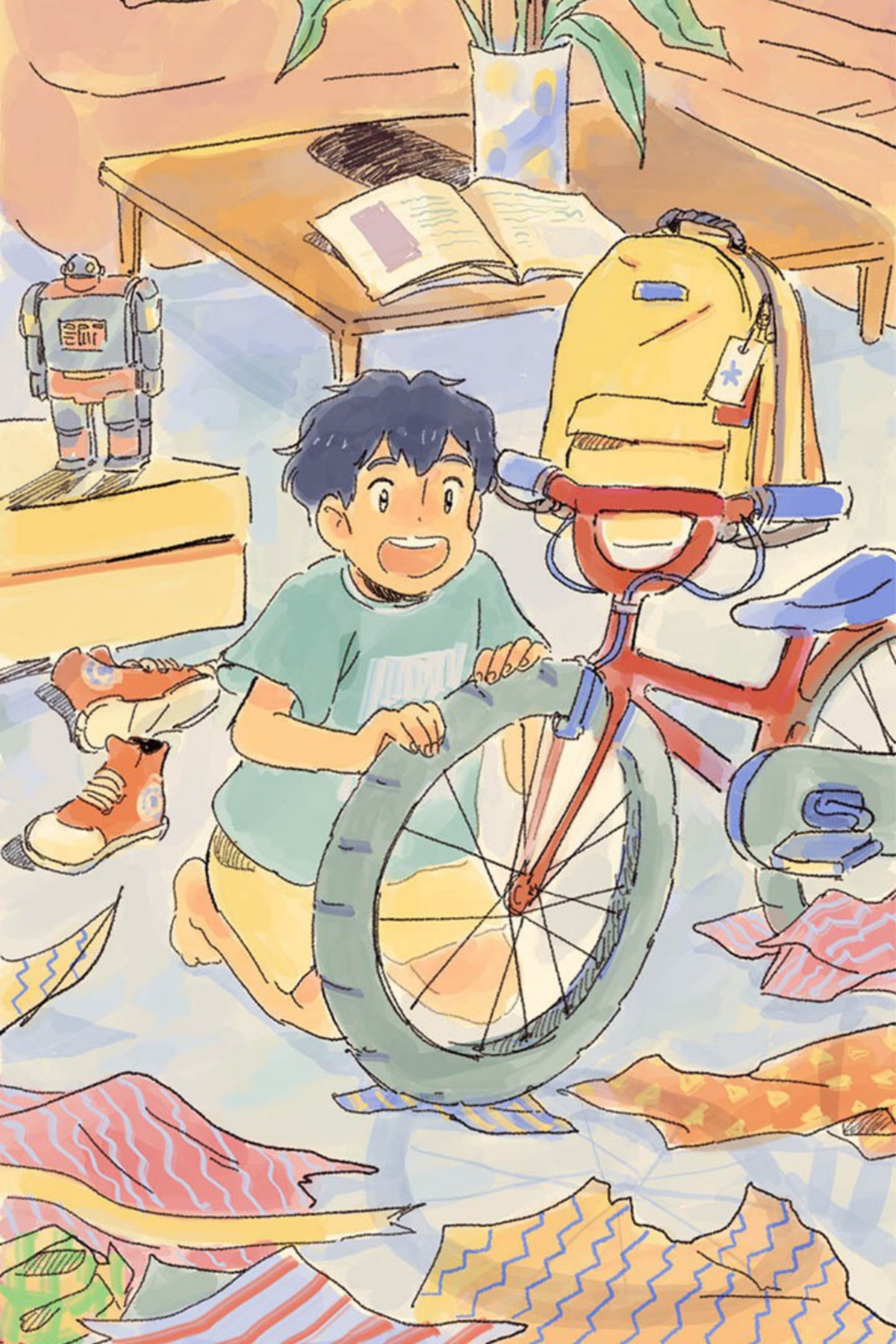




이제 케이크의 촛불을 불  
시간이었어요. 농구공이 장식된 생일  
케이크는 아주 멋졌어요. 파티에 온 모든  
사람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소원이 뭐야, 안톤?” 하고 마유미가  
물었어요.

“나는 아빠처럼 농구 선수가 되고  
싶어!” 안톤이 말했어요. 농구는  
필리핀에서 아주 인기가 많아요.



생일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집에 돌아갔어요. 안톤은 신이 나서 생일 선물을 열어 보았어요.

“와, 로봇, 가방 그리고 신발이야!” 그런 다음 아미한과 마릴락의 가족이 준 커다란 선물을 열어보았어요.

“새 자전거다! 선물 중에 제일 좋아! 아미한 누나, 마릴락 누나, 고마워!” 하고 안톤이 말했어요.



다음 날, 아미한은 안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안톤은 여러 번 넘어졌지만 아미한은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마침내 안톤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아미한과 안톤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놀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생일 파티”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